

예수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마16:15). 예수님의 사람들의 견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견해, 당신의 생각, 주장, 말이 무엇인지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 예언된, 미리 기록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 예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마 16:16).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란 말인데 시편에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낳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아들이란 뜻입니다. “내가 칠행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시2:7).
-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시오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요1:1).
- 예수님은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십니다(요1:14).
-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미리 기록된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이신 분으로 메시아입니다.
-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요일5:20).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요일 5:20)
-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빌2:7),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롬8:3),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으며(히2:16), 사람의 모양이 되신 분이십니다(빌2:8).

-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경건의 신비입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경건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딤후3:16).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그분을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17:3).

여러분이 그분을 알지 못하면 주님 역시 여러분을 향해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마7:23).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마25:12)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알고 그분을 믿으십시오. 주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행2:21).

**말씀침례교회 \*BIBLE BAPTIST CHURCH:**  
Pastor. Peter Yoon

<http://av1611.net>, Tel. 562-455-9801  
7342 Orangethorpe Ave. C118, Buena Park, CA 90621

# DO YOU KNOW HIM?

그분을 아십니까?

성경은 세상의 어떤 책보다 등장인물이 많이 나옵니다. 첫 사람 아담, 그의 아내 이브 그리고 그의 아들들인 가인, 아벨, 셋으로부터 시작해서 끝없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컴퓨터로 이름을 세어보면 목록만으로 2천 6백 18개로 중복되는 이름을 빼고 계보에 담긴 인물만 세어도 2천 1백 97명입니다. 마치 전화번호부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 가장 유명한 이름, 세상에 널리 알려진 한 사람의 이름은 단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에서부터 그의 출생과 죽음이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태어나기 몇 천 년 전부터 그분에 대해 성경은 반복해서 자세히 언급합니다. 책으로 기록된 구약 성경 39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미리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나 그것들은 곧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요5:39)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분의 오심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알아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여자의 씨라고 말합니다(창3:15).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씨”로 태어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분’은 여자의 씨, 즉 남자를 알지 못한

채 태어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14)고 말합니다. 그럼 여자의 씨요, 남자를 알지 못한 채 처녀가 수태하여 태어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그가 누구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이], [조연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사9:6). 여자의 씨로 한 아이, 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이, 조연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불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불리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씨로 태어난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 ‘그리스도’라 불리며 ‘평화의 통치자’라고 불립니다.

세상의 어떤 현자들, 종교 창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등은 ‘현자’, ‘성인’이란 말은 들어도 하나님의 아들, 평화의 통치자라고 불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몇 천 년 전부터 그분이 탄생할 장소, 그분이 하는 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모두 문자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이 이 땅에 왔을 때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해 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기록대로 탄생하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고전15:3,4).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는 그분이 성경에 미리 기록된 바로 ‘그분’임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 기록대로”란 말은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공개적으로 선포되고 증언되었으며, 책으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어떤 역사적 인물이 죽고 나서 후대에 그의 추종자들이나 사람들에게 의해 쓰인 기록은 거짓, 첨가, 왜곡, 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기록된 기록, 미리 선포된 예언의 말씀은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며, 그분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분의 죽음과 묻힘,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한 모든 기록은 그분의 사후에 추종자들이나 제자들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기도 전에 이미 몇 천 년 동안 증언되고 미리 선포된 것입니다. 이는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해 서입니다. 미리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기록된 말씀대로 일어날 때 믿을 수 있는 근거, 증거가 됩니다.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요13:19).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이유와 목적이 이것입니다.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미리 말씀해 주시고, 미리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것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요14:29). 주님은 자신에 대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 일이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날 때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역사적 사건은 예언의 말씀을 확증하는 도구입니다.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20:31).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며, 누구라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마16:13).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의 하나라고 하나이다.”(마16:14). 이것이 당시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알려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졌음에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이가 적었습니다.

-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일컬어 죽은 침례자 요한이라고 했습니다(헤롯 왕)
- 어떤 이들은 엘리야,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이스라엘 사람들, 무슬림).
- 어떤 이들은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영지주의).
- 어떤 이들은 피조된 신(여호와와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 어떤 이들은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합니다(안식교).
-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몰몬교).
- 어떤 이들은 대언자들 중의 하나(무슬림)라고 하며,
- 어떤 이들은 그냥 사생아(유대교)일 뿐이라고 합니다.
- 어떤 이들은 민중의 혁명가(해방 신학)라고 하고
- 어떤 이들은 슈퍼스타(헐리웃)라고 하고
- 어떤 이들은 외계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누구라고 하든, 무엇이라고 말하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요17:3).